# “에너지 소비자서 생산자로 전환을”

**불교환경연대, 2월 11일 간담회**
**조계종에 범종단 거버넌스 제안**
**RE100 108사찰로…태양광 제시**
**기금 조성 등 로드맵 본격화**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불교환경연대는 2월 11일 서울 불교환경연대 그린담마홀에서 ‘불교계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불교계 차원의 탄소중립 실행 방안을 모색했다.

가속화하는 기후위기 속에서 불교계 환경단체가 선언을 넘어 실행 중심의 탄소중립 이행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생명존중과 연기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범종단적 거버넌스를 구축해 ‘불교 RE100’을 실현하자는 구체적 로드맵이 제시된 가운데 기후위기 시대, 사찰이 수행과 전법의 공간을 넘어 생태전환의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만 스님)는 2월 11일 서울 불교환경연대 그린담마홀에서 ‘불교계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불교환경연대는 불교계 ‘RE100’ 실현을 핵심 과제로 제안했다. ‘RE100’은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자는 캠페인으로 탄소 배출량을 0으로 하는 것이 목표다. 사찰이 에너지 소비자를 넘어 재생에너지 생산자로 전환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실천하자는 취지다.

불교환경연대는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탄소중립 RE100 태양광 설치 사업’을 제시했다. 불교환경연대는 2022년 10월, 비로자나자연에너지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실천 사례를 만들고 있다. 협동조합은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체계를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현재 고양 법문사 옥상에 제1호 햇빛발전소(설치용량 42.42㎾)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법문사 햇빛발전소의 연간 발전량은 4만8313㎾h에 달한다. 이에 따른 이산화탄소($CO_2$) 저감량은 연간 22.18톤으로, 30년생 소나무 161그루를 심는 효과와 맞먹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불교환경연대는 첫 번째로 탄소중립과 RE100 실현을 위한 범종단적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조계종 환경위원회를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전문가를 망라한 협의체를 구성해 정책 수립과 실행을 체계화하자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실제 조사에 기반한 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이다. 사찰과 기관의 에너지 실태 및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탄소중립 계획과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선언적 차원을 넘어 예산 확보와 집행, 이행 점검과 보완까지 아우르는 종합적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기금 조성과 예산 확보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탄소중립 사업은 초기 설치 비용이 수반되는 만큼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필수적이다. 불교환경연대는 탄소중립 예산의 확보와 집행, 이행 과정 점검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실행 과제로는 재생에너지 설치를 희망하는 사찰을 대상으로 사전 신청을 받아 현황을 파악하고, 에너지 진단과 건물지원사업 연계를 통해 기술·예산 지원을 병행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에너지공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보조금 지원이 필수적이다. 에너지공단의 건물지원사업은 3월 20일부터 4월 10일경 공고될 예정이지만, 신청자가 많아 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조계종단 차원의 공동 대응과 일괄 접수 등 체계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웃 종교계의 사례도 소개됐다. 천주교 수원교구는 경기에너지공단과 협약을 체결해 지원을 받고 있으며, 천주교주교회의는 한국에너지공단과 협약을 맺고 2026년부터 전국 성당을 대상으로 일괄 신청을 추진할 예정이다. 불교계 역시 범종단 협력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불교환경연대는 올해 안에 ‘RE100 사찰 50곳’ 달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더 나아가 ‘불교 RE100 108사찰’ 실현에 대한 포부도 밝혀 눈길을 끌었다.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법만 스님은 “불교가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해 가장 잘할 수 있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 기후위기 대응”이라며 “이제는 종단과 시민사회가 손을 맞잡고 실행 중심의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스님께 세배하고 함께 명절 음식도 만들고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2월 12일 재단 산하 어린이집을 방문해 아동들에게 따뜻한 자비 온기를 전했다. 사진은 강정 꽃다발 만들기 활동 모습. 사진 제공=조계종사회복지재단

**조계종복지재단, 산하 시설 방문**
**아동들에 자비나눔 선물 증정도**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도륜 스님, 이하 재단)이 설을 앞두고 미래 세대 아이들에게 따뜻한 자비 온기를 전했다.

재단 대표이사 도륜 스님은 2월 12일 서울 구로연꽃어린이집과 아나율장애아어린이집을 방문, 아동들을 격려하고 새해 희망을 나눴다.

이날 도륜 스님은 어린이집 입구에서 학부모와 교직원을 위한 다과를 제공하는 ‘도륜 스님이 쏜다!’ 이벤트를 진행하며 활기차게 행사를 시작했다. 이어 교실을 방문해 아이들로부터 세배를 받고 덕담과 함께 새해 선물을 증정하며 훈훈한 정을 나눴다.

특히 재단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어린이집 야외 마당에 새로운 놀이시설과 장남감을 기증하는 전달식을 가졌다. 이후 도륜 스님은 아이들과 한 팀이 돼 직접 강정 꽃다발을 만들고 시식하는 체험 활동을 하며 명절의 즐거움을 함께 만끽했다. 임은호 기자

# 대불련 총동문회 신임 회장 임문우 변호사

**2월 7일 서울 조계사서 취임식**
**임 회장 “후배 지원 힘쓸 것”**
**대불, 대학생 9명에 2100만원**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이하 대불련 총동문회) 제32대 회장에 임문우 변호사〈사진〉가 취임했다.

대불련 총동문회는 2월7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제31·32대 회장이·취임식’을 거행했다. 200여 대불련 동문회원들이 참석, 새로운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고 대학생 전법을 위해 정진할 것을 다짐했다.

임문우 신임 회장은 이날 취임 일성으로 인재불사를 강조하며 후배 동문 결집의 초석을 놓겠다고 다짐했다. 임 회장은 “1950년대부터 90년대 학번 동문을 이어 2000년대 이후 후배 동문들을 육성하고 조직화해 총동문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면서 “전체 동문들의 화합을 도모, 대불련 후배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수행활동 활성화 △2027년 총동문회 창립 60주년 기업사업 준비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이어 대불련 총동문회가 대학생 불자를 육성하기 위해 2010년 설립한 사단법인 ‘대불’과 함께 대학생 9명에게 총 2100만원을 장학금으로 전달하며 후배들을 응원했다.

이날 법사로 나선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자광 대종사는 ‘베푸는 삶’을 강조하며 “남을 위해 봉사하고 도와주고 서로 어려움을 감싸며 훗날 ‘좋은 사람이었다’고 기억되는 삶을 살라”고 당부했다.

한편 임문우 신임 회장(경북대 법학과 82학번)은 경북대 불교학생회 출신으로 대불련 총동문회 대구경북 지부장과 사단법인 대불 이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 대구에서 임문우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임은호 기자

# 태고종립 동방불교대 졸업식…44명 졸업

**2월 9일 전승관 대강당서 개최**
**“정진의 법력, 세상 밝혀주길”**




태고종 종립 동방불교대학(학장 법담 스님)은 2월 9일 서울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대강당에서 제42회 졸업식을 개최했다.〈사진〉

이날 졸업식에서는 동방불교대학 이사장 상진 스님(태고종 총무원장)을 비롯해 동방불교대학장 법담 스님, 교육원장 재홍 스님, 범패학과 교수 일운 스님, 태호 스님, 실담범자 교수 법헌 스님 등 교수진과 총무원 각 부·실장 스님 등이 참석했다.

동방불교대학은 졸업식을 통해 불교학과 37명, 범패학과 7명 총 44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이날 각과 최우수상 시상을, 교육원장 재홍 스님은 1학년 최우수상 시상을, 학장 법담 스님은 장려상을 시상했다. 법담 스님은 또 보현장학회와 화엄회 등에서 주는 장학금을 대신 시상했다. 장학금은 상진 스님, 재홍 스님, 법담 스님 등이 후원해 마련됐다.

상진 스님은 치사를 통해 “사찰 불사와 끊임없는 수행정진이라는 고된 여정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학문의 길을 묵묵히 걸어오신 졸업생 여러분께 깊은 치하를 드린다”면서 “여러분이 흘린 고귀한 땀방울은 장차 불국토를 일구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학교에서 절차탁마하며 닦아 온 학문과 인격, 그리고 정진의 법력이 종단과 우리 사회를 환히 밝혀 주기를 기대한다”며 “여러분의 발길 닿는 곳마다 법의 향기가 피어나고 머무는 곳마다 평화와 화합의 꽃이 만개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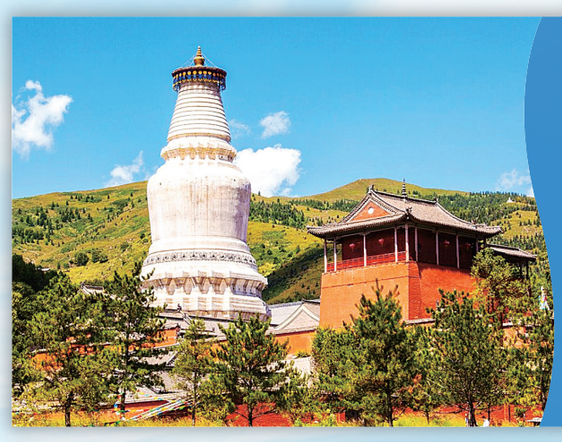
이에 앞서 법담 스님은 식사에서 “졸업하면 다음 단계는 좀 더 깊은 경전 공부와 수행의 단계로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면서 “중앙승가강원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으므로 부디 열려 있는 수행의 길을 외면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원장 재홍 스님은 축사에서 “종교의 의무는 전법과 수행에 있다”면서 “여러분이 날로 더욱 정진하고 수행한다면 전법 성과는 높아지고 종단 또한 더욱 빛을 발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신중일 기자




황금빛 불탑의 나라, 미얀마
완전일주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박7일
▶출발일 : 2026년 11월 13일 ~ 11월 19일
2026년 12월 11일 ~ 12월 17일
2027년 1월 15일 ~ 1월 21일
▶동참금 : 문의
+ 양곤/짜익티오 4박5일



중국 4대 불산
지장도량 구화산+서호 3박4일
관음도량 보타낙가산+상해 3박4일
문수도량 오대산+운강석굴 4박5일
보현도량 아미산+낙산대불 4박5일
▶동참금 : 문의
+ 민족의 영산, 백두산 3박4일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인도/네팔 성지순례 8박10일
▶일 정 : 인천-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쉬라바스티-아그라-델리-인천
▶동참금 : 문의



인도양의 진주
스리랑카 성지순례 6박8일
▶일 정 : 인천-콜롬보-아누라다푸라-미힌레-담불라-시기리야-폴론나루와-알루비하라-캔디-누와라엘리아-아훙갈라-콜롬보-인천
▶동참금 : 문의

성지순례자의 도반 마하연투어
예약·상담 02-365-7747 마하연투어
www.mahayeon.com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39(우정에쉐르) 1401호